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2월 2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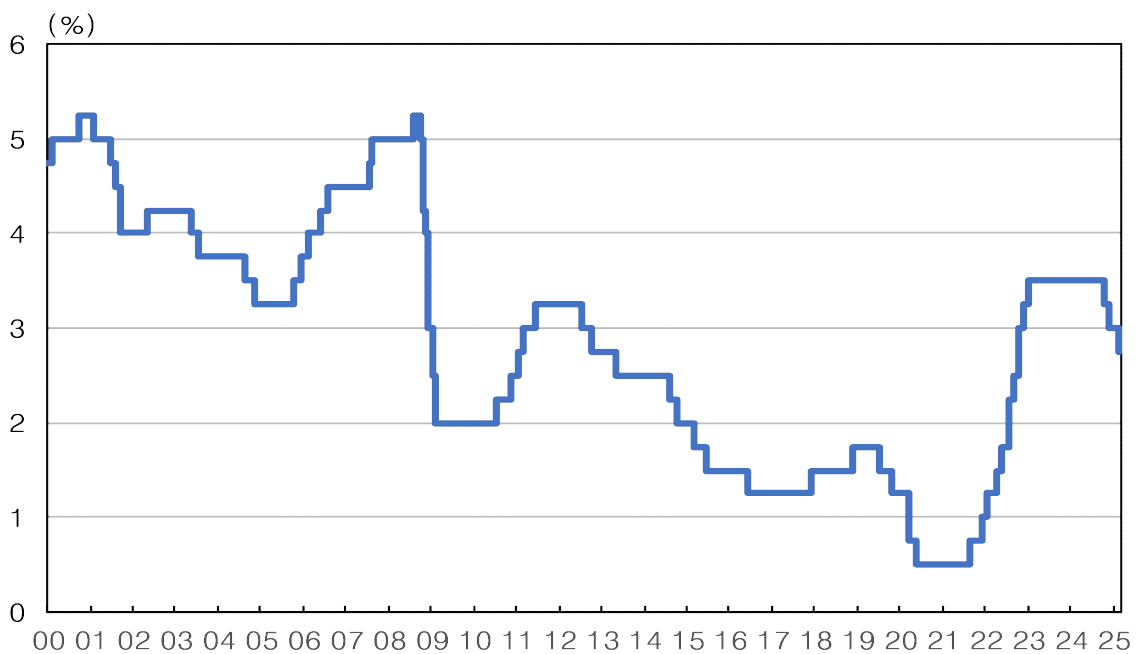
(붙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2.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sup>1)</sup>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1/4	2/4	3/4	4/4	24.11월	12월	25.1월
미국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2.9	2.8	1.6	3.0	3.1	2.3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3.4	3.0	0.1	0.5	1.3	1.8	0.7	0.7	-0.9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0.2	-0.3	-0.4	0.6	-0.2	-0.3	-0.1	1.0	0.5
	ISM제조업 <sup>2)</sup> (기준=50)	47.1	48.2	48.8	48.5	47.3	48.2	48.4	49.2	50.9
	실업률 <sup>1)</sup> (%)	3.6	4.0	3.8	4.0	4.2	4.2	4.2	4.1	4.0
	비농기취업자수증감 <sup>1)</sup> (전기비, 만명)	334.8	209.3	57.5	51.4	33.8	50.4	26.1	30.7	14.3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3.2	3.2	2.6	2.7	2.7	2.9	3.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8	3.4	3.3	3.3	3.3	3.2	3.3
유로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0.4	0.7	1.3	0.7	1.6	0.2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1.9	1.0	0.2	0.2	1.1	0.3	0.0	-0.2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1.7	-3.0	-0.5	-0.2	-0.5	-0.5	0.4	-1.1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5.0	45.9	46.4	46.3	45.5	45.4	45.2	45.1	46.6
	실업률 <sup>1)</sup> (%)	6.6	6.4	6.5	6.4	6.3	6.3	6.2	6.3	..
	수출 <sup>1)3)</sup> (전기비, %)	-0.8	0.6	0.5	0.5	-0.8	0.7	3.4	-0.2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6	2.5	2.2	2.2	2.2	2.4	2.5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3.1	2.8	2.8	2.7	2.7	2.7	2.7
일본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1.5	0.1	-1.9	3.0	1.7	2.8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5.7	2.4	0.0	1.8	1.1	-0.3	1.9	-0.8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1.4	-2.7	-5.1	2.7	-0.4	1.1	-2.2	-0.2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0	49.2	47.8	50.0	49.5	49.3	49.0	49.6	48.7
	수출 <sup>1)</sup> (전기비, %)	2.8	6.0	-1.3	2.5	0.2	1.4	-0.1	6.5	-2.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5	2.7	2.8	2.9	2.9	3.6	4.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2.4	1.9	1.7	1.6	1.7	1.6	1.5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5.3	4.7	4.6	5.4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7.2	3.5	4.7	2.6	2.7	3.8	3.0	3.7	..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4.6	5.8	6.1	5.9	5.0	5.6	5.4	6.2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9	49.8	49.7	49.8	49.4	50.2	50.3	50.1	49.1
	수출(전년동기비, %)	-4.7	5.9	1.5	5.7	5.9	9.9	6.6	10.7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0	0.3	0.5	0.2	0.2	0.1	0.5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2.7	-1.6	-1.8	-2.6	-2.5	-2.3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sup>4)</sup> (전년동기비, %)	-1.9	..	-0.5	0.4	1.9	..	3.5	..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지표

		2023	24.10월	11월	12월	25.1.15일	25.1월	224일
국채금리 <sup>1)</sup> (%)	미국(2년물)	4.25	4.17	4.15	4.24	4.26	4.20	4.17
	미국(10년물)	3.88	4.28	4.17	4.53	4.65	4.54	4.40
	독일(10년물)	2.02	2.39	2.09	2.37	2.56	2.46	2.48
	영국(10년물)	3.54	4.45	4.24	4.57	4.73	4.54	4.56
환율 <sup>1)</sup>	달러인덱스	101.3	104.0	105.7	108.5	109.1	108.4	106.6
	신흥시장국 <sup>2)</sup>	48.1	44.8	43.7	42.8	43.1	43.5	44.4
	엔/달러	141.0	152.0	149.8	157.2	156.5	155.2	149.7
	위안/달러	7.11	7.12	7.24	7.30	7.33	7.24	7.25
주가 <sup>1)3)</sup>	전세계	727.0	832.3	862.5	841.3	847.3	869.0	870.6
	선진국	3169.2	3647.1	3810.1	3707.8	3744.5	3836.6	3828.2
	신흥시장국	1023.7	1119.5	1078.6	1075.5	1055.8	1093.4	1135.7
VIX <sup>1)</sup>		12.5	23.2	13.5	17.4	16.1	16.4	19.0
CDS프리미엄 <sup>1)</sup> (bp)	신흥시장국	167.5	168.1	156.5	172.5	162.8	160.1	155.4
	중국	59.6	64.0	64.5	66.0	55.9	56.5	45.7
	한국	27.2	33.8	34.0	37.7	38.5	32.9	29.0
유가 <sup>1)4)</sup> (달러/배럴)	WTI	71.7	69.3	68.7	71.7	77.5	72.5	70.9
	Brent	77.6	73.3	74.2	74.1	83.0	76.9	74.7
	Dubai	76.5	71.7	72.0	75.1	83.3	75.5	74.4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7.8	229.7	-219.3	-67.9	9.6 <sup>5)</sup>	-7.9	-117.5 <sup>6)</sup>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현물 기준

5) 25.1.2~25.1.15일 기준

6) 25.1.30~25.2.19일 기준

## [ 실물경기 ]

□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3	2024	24.1/4	2/4	3/4	4/4	24.11월	12월	25.1월 <sup>6)</sup>
GDP 성장률 <sup>1)</sup>	1.4	2.0	1.3	-0.2	0.1	0.1	-	-	-
(민간소비)	1.8	1.1	0.7	-0.2	0.5	0.2	-	-	-
(설비투자)	1.1	1.8	-2.0	-1.2	6.5	1.6	-	-	-
(건설투자)	1.5	-2.7	3.3	-1.7	-3.6	-3.2	-	-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5	-2.2	-0.5	-0.8	-0.6	-0.6	0.0	-0.6	..
설비투자지수 <sup>2)</sup>	-4.9	4.1	-3.8	-0.2	10.3	0.1	0.0	9.9	..
건설기성액 <sup>2)</sup>	7.3	-4.9	4.9	-6.2	-5.0	-5.2	-0.9	1.3	..
수출(통관) <sup>3)</sup>	-7.5	8.1	8.0	10.1	10.5	4.2	1.3	6.6	-10.2
- 일평균 <sup>3)</sup>	(-6.8)	(8.1)	(8.8)	(10.9)	(10.5)	(2.7)	(3.5)	(4.3)	(7.8)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2.6	4.4	-0.5	1.5	-1.3	2.6	-0.2	4.4	..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3.2	1.4	0.8	-0.3	0.2	0.4	-0.2	1.7	..
소비자심리지수 <sup>4)</sup>	97.4	100.0	101.4	100.0	101.5	96.9	100.7	88.2	91.2 [95.2]
기업심리지수 <sup>4)5)</sup>	90.5	92.8	92.2	95.4	93.4	90.3	90.9	87.1	89.0 [90.1]
취업자수 증감 <sup>3)4)</sup>	32.7	15.9	29.4	14.6	14.6	5.2	12.3	-5.2	13.5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8	62.8	62.7	62.5	62.6	62.3	62.9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2.8	2.8	2.5	3.0	2.7	3.7	2.9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6) [ ]내는 25.2월

## [ 물 가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2.7%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를 소폭 하회하는 1.8%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3	2024	24.1/4	2/4	3/4	4/4	24.11월	12월	25.1월 <sup>4)</sup>
소비자물가 <sup>1)</sup>	3.6	2.3	3.0	2.7	2.1	1.6	1.5	1.9	2.2
	-	-	(0.7)	(0.3)	(0.4)	(0.2)	(-0.3)	(0.4)	(0.7)
▪ 농축수산물	3.1	5.9	10.4	8.6	3.4	1.6	1.0	2.6	1.9
▪ 공업제품	2.6	1.5	2.0	2.1	1.4	0.6	0.6	1.4	2.2
(석유류)	-11.1	-1.1	-1.8	2.9	0.0	-5.2	-5.3	1.0	7.3
(석유류 제외)	4.8	1.9	2.5	2.0	1.6	1.4	1.4	1.5	1.6
▪ 전기·수도·가스	20.2	3.5	5.4	3.1	2.4	3.0	3.0	3.0	3.1
▪ 서비스	3.3	2.2	2.5	2.2	2.2	2.1	2.1	2.1	2.3
(공공서비스)	1.3	1.7	2.1	2.2	1.5	0.9	0.9	1.0	0.8
(개인서비스)	4.8	3.0	3.3	2.8	3.0	2.9	2.9	2.9	3.2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2.5	2.2	2.1	1.8	1.9	1.8	1.9
(관리물가 <sup>2)</sup> 제외)	3.9	2.1	2.5	2.1	2.1	1.9	1.9	1.9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2.6	2.1	2.0	1.8	1.8	1.8	2.0
기대인플레이션율 <sup>3)</sup>	3.5	3.0	3.1	3.1	2.9	2.8	2.8	2.9	2.8 [2.7]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 ]내는 25.2월

## [ 금융안정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다.

### 국내금융지표

	2023	24.10월	11월	12월	25.1.15일	25.1월	2.24일
국고채금리 <sup>1)2)</sup> (3년물, %)	3.15	2.94	2.61	2.60	2.68	2.57	2.61
국고채금리 <sup>1)2)</sup> (10년물, %)	3.18	3.10	2.75	2.86	2.86	2.86	2.83
통안증권금리 <sup>1)2)</sup> (91일물, %)	3.48	3.06	2.98	2.96	2.89	2.87	2.84
CP금리 <sup>1)2)</sup> (91일물, %)	4.32	3.54	3.39	3.58	3.34	3.25	3.19
회사채금리 <sup>1)3)</sup> (3년, AA-, %)	3.89	3.50	3.20	3.28	3.32	3.17	3.19
(3년, BBB-, %)	10.33	9.34	9.00	9.05	9.10	8.95	8.96
KOSPI <sup>1)</sup>	2655.3	2556.2	2455.9	2399.5	2496.8	2517.4	2645.3
원/달러 환율 <sup>1)</sup>	1288.0	1379.9	1394.7	1472.5	1461.2	1452.7	1427.4
원/100엔 환율 <sup>1)</sup>	912.3	903.2	929.5	948.8	928.3	939.0	955.2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4.7	-4.5	-2.3	-0.1 <sup>4)</sup>	-1.5	-2.8 <sup>5)</sup>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5.1.1~25.1.15일 기준      5) 25.2.1~25.2.24일 기준

-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였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1/4	2/4	3/4	4/4	24.11월	12월	25.1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25.0	24.1	19.4	-1.1	2.2	-11.5	7.8
▪ 대기업	31.9	26.7	12.6	8.3	7.1	-1.2	0.2	-4.3	6.1
▪ 중소기업	45.5	40.6	12.4	15.9	12.2	0.1	2.0	-7.1	1.8
은행 가계대출 증감 <sup>1)</sup> (조원)	36.9	46.0	3.5	16.9	20.2	5.3	1.9	-0.4	-0.5
▪ 주택담보대출 <sup>1)</sup>	51.6	52.1	10.1	16.4	19.8	5.8	1.5	0.8	1.7
▪ 기타대출 <sup>2)</sup>	-14.5	-5.9	-6.4	0.5	0.5	-0.4	0.4	-1.1	-2.1
주택 매매가격 <sup>3)</sup> (%)	-3.6	0.1	-0.4	-0.0	0.6	0.0	0.0	-0.1	-0.1
▪ 수도권 <sup>3)4)</sup>	-3.6	1.4	-0.4	0.2	1.3	0.3	0.1	-0.0	-0.1
(서울) <sup>3)</sup>	-2.0	3.2	-0.2	0.6	2.1	0.6	0.2	0.1	0.0
▪ 지방 <sup>3)5)</sup>	-3.5	-1.0	-0.4	-0.2	-0.2	-0.3	-0.1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